



2021년 개최된 예술날개 페스티벌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 장애인·비장애인 ‘예술날개’ 펼치다

### 광주문화재단 ‘페스티벌’ ... 14일~12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극단 애인 ‘3인3색’ 개막공연, 베리어-프리 광주 ‘무언극 창조’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펼치는 저지만 의미 있는 축제 페스티벌이 열린다. 일명 '2022 예술날개 페스티벌'.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담아 예술적 승화를 견인하자는 취지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낸 축제다. 특히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광주문화재단은 2회 연속 장애인 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장애인 예술인 활동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광주문화재단(대표 황종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연다. 장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은암미술관, 컬쳐 호텔 호텔 램프 1층 미술전시공간이다.

이번 예술날개 페스티벌은 지역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뽐내는 결과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장애인·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무대다.

페스티벌 개막 공연은 오는 15일 오후 7시 극단 애인의 '3인 3색' 개막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지난 2007년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극단 애인은 '장애'의 신체적 특징을 표현하는 단체다. 시차가 있는 언어, 휠체어와 한 몸인 움직임 등을 매개로 작품을 풀어낸다.

이번 작품은 단원들이 직접 쓰고, 연출, 출연하는 대표작이다. 현재까지 시즌 3까지 발표했고 9 작품 중 세 편의 작품 '한달이', '소리전쟁', '알록달록 한뫼한뫼'을 선정해 선보일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우리오케스트라단(음악감독 김

수연)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을 위해 조직된 우리오케스트라단은 지난 7월부터 17명의 지역 장애인을 선발해 12주간 악기연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연명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17명의 교육생들은 저마다 연습한 곡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망을 안고 무대에 오른다. 교육에 참여한 강사는 각각 강연, 김지윤, 백혜원, 윤은반(바이올린), 김성복(첼로), 조다은(플루트) 등이다. 협연으로 (사)아시아문화예술위원회 전문예술단체와 강상수와 밴드(스키아 브릿지), 라브브르 주니어 아상블 어린이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한다.

연극 무대도 마련돼 있다. 우리연극단이 '맹진사댁 경사'를 원작으로 '경사났네, 경사났어'를 풀어낸다. 오는 18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맹진사는 판서댁 아들 미인을 사위로 맞아 세도가 사돈이 되고 싶다. 그러나 절름발이 사위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괴를 낸다. 딸의 몸종 이쁜이를 속여 시집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이다.

연출은 원광연이 맡았으며 유지영 강사와 전문 배우 한종신, 박유정, 김예성, 정남일, 이종경이 교육생 7명과 12주간 연기 연수를 진행했다.

제목부터 눈에 띄는 전시 베리어-프리 광주 '무언극 창조'전은 인권과 예술의 가치를 상징한 전

시다. 오는 12월 2일 은암미술관과 컬쳐 호텔 램프 1층 전시장에서 열리며 전시기획은 노정숙 큐레이터가 맡았다.

장애예술인창작센터 '보듬' 입주작가를 비롯해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광주광역시 장애인 예술인협회, (사)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협회, 광주 정신재활센터 소속의 70여 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부산 장애예술창작센터 '온그루' 입주 작가와 교류전을 함께 연다.

독립영화 감독 조재형의 '맛의 기억'도 베리어 프리-화면해설을 매개로 볼 수 있다. 고희영 전라도인 여자가 경상도에 살면서 맛 칼럼 기자로 활동한다는 내용이다. 작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시나리오가 제공된다.

문학으로도 예술날개를 만난다. 중단 작가뿐 아니라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명 작가들의 목소리를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작품집 '예술날개 3'에는 시, 시조가 40편 동화 1편, 수필 2편으로 총 43편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실로암사람들 대표 김용목 기획위원과 문예지 '시와사람' 강경호 편집장이 선발된 10명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협의해 최종 원고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작가별 2개 작품을 액자에 넣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2층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점자와 보이스코드 수어통역사, 자막, QR코드 등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문의 062-670-746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 광주 미용 이야기' 전시 오는 30일까지 전일문화센터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 '광주 미용' 시작부터 현재까지

### '광주 미용 이야기' 전, 30일까지 전일문화센터 4층 전시실

'광주 미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다.' 광주 미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헤어스타일, 미용 교육, 미용인 이야기, 시대별 헤어스타일과 헤어아트 작품 등을 전시하는 특별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광주의 미용 역사를 정리하는 중요한 아카이브 전시다.

'2022 광주미용이야기전'이 오는 30일까지 전일문화센터 4층 특별전시실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전시는 모두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광주 미용인! 미용을 디자인하다' 섹션에서는 1900년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용의 시작과 현재, 시대별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며 이효춘·수지 등 광주 출신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도 살펴본다.

또 광주 최초의 미용실과 현재 광주미용을 이끌어 온 협회, 지역 미용인들을 만난다. 최고의 숙련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미용명장 1호 김진숙 한울미용실 대표를 비롯해 대한민국미용명장 9호 정찬이, 광주시미용명장 이순·이숙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광주 미용 교육! 미용인재를 양성하다' 섹션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해외교육생을 대상으로 뷰

티아카데미를 운영, 뷰티교육관광사업을 특화해 온 광주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광주시장배 대회 등을 통해 미용인의 기술 창작 의욕 등을 고취시킨 역사도 돌아본다. 그밖에 대한한국미용명장 등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함께 사설교육기관, 특성화고, 2~4년제 대학교 석·박사 과정까지 갖춘 교육 인프라도 소개한다.

'미용예술! 미용을 창작하다' 섹션에서는 시대별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재현한 작품을 통해 머리 카락의 형태, 질감, 컬러 스타일을 살펴본다.

특히 머리카락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예술 장르인 '헤어아트'의 세계가 눈길을 끈다. 1980년 광주에서 처음 시작된 헤어아트는 미용실에서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활용해 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책갈피를 제작하는 데서 시작해 지금은 장신구, 코사지, 미술작품 등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이번 전시에는 김진숙 명장 등이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 지역 미용인들의 사회봉사활동 모습, 미용인들이 실력을 발휘했던 미스코리아 대회 등의 자료와 '광주의 미용인'을 주제로 한 영상자료도 만날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생성지점'

## 여행의 기억... 낮설고 푸른 생성지점

### 윤세영 개인전, 28일까지 김넛과... 30일부터 서울 G&J 갤러리

'생성 지점'이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윤세영 작가의 작품은 깊은 심연을 떠올리게 한다. 무한의 에너지가 모이는 듯한 푸른빛의 구멍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작가는 올해 이탈리아와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통해 작업 세계의 변화를 예고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같은 붉은 빛을 과감히 끌어들이는 게 대표적이다. 또 낮선 곳에서 경험했던 풍경을 재해석해 비현실적 화면으로 풀어냈다. 안으로 쌓여가던 상상의 세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윤세영 작가 열한 번째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 문화공원 김넛과 지하층과 1·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울 G&J 갤러리에서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윤 작가는 '낮설고 푸른 생성지점 Becoming sp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설치 작품과 150호 대작, 소품 등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올 여름 코로나를 뚫고 이탈리아에서 작가들과 교류전을 열었고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푸른 실과 조명을 이용한 설치 작품으로 표현했다. 푸른물이 담긴

수십개의 물병과 가느다란 실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다.

특히 작가는 아이슬란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곳은 폭포와 암석과 나무로 이루어진, 분명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먼 우주의 어느 한 지점처럼도 보였다. 낯선 풍경은 내면의 동요를 일으켰고 작가는 한 화면 안에 함께 담기 어려운 풍경을 자유롭게 풀어냈다.

한국화작가이지만 석재와 분체 이외에도 유채와 아크릴 등 재료를 가리지 않는 윤 작가의 작업은 이번엔 새롭고 선보이는 작품에서 빛을 발한다. 두터운 마티에르의 효과와 수묵의 번짐 효과가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냈다.

윤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대학원 졸업했으며 독일, 서울, 광주 등에서 11회 개인전을 열었다. 2019 독일 뮌헨 빌라 발드베르타 국제 레지던시 작가, 론체가 이탈리아 레지던시 작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참여했으며 최정웅청년작가상,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재단과 (주)영무 토건의 문화매세나 문화동행 광주문화예술 기부금 매칭 지원을 받아 열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솔비>

## 권지안 작품, 미디어아트로 만나다

### 진시영 작가 협업... 12~26일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

오월 광주의 상징적 장소인 5·18 광장의 '빛의 분수대'는 자유와 인권 평화의 정신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광주의 대표 야간 경관이다.

'빛의 분수대'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곡가 김형석, 세계적 미디어아트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과 크지슈토프 보디치코 등이 참여한 '시그니처' 3작품과 함께 기획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권지안 작가(가수 솔비)의 작품이 '빛의 분수대'에서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했다. 진시영 작가와 협업한 미디어 아트 '플라워 프롬 헤븐'(Flower from heaven)으로 12일부터 26일까지(매주 금·토요일 총 8화·오후 8시15분) 선보일 예정이다. 30분 간 진행되는 시연에서는 권 작가의 작품과 함께 다양한 시그니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작업은 권 작가가 "19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오월정신을 빛으로 승화시키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공감해 진행됐다.

권 작가의 그림 '스텝(stem) 시리즈'를 활용해 제작된 이번 작품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추억과 감사함, 사랑, 그리움을 표현한 원작을 기반으로 사랑의 시작부터 만남, 설렘, 행복, 헤어짐, 그리움의 과정을 물과 조명 작업을 더해 다양하게 표현해냈다.

권 작가가 직접 허밍을 부르며 매력적인 음색을 더했고, 손을 이용해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성을 서사적으로 표현해 냈다. 권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시대를 넘고 세대를 연결하여 세계로 나아가며, 새로운 연대를 희망하는 그녀의 마음, 광주의 꿈

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열린 TIBAEG(티백) 2023 S/S 서울 패션위크에서 작품 '허밍 시리즈'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tibaeg951' 컬렉션을 공개했으며 지난 2019년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 기념 공연에서도 다면형 입체 미디어파사드 'Light Drawing Flow'와 퍼포먼스 페인팅 'VIOLET'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야간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은 '빛의 분수대'는 지난 6월10일 개장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소문을 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



권지안(솔비)

진시영

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총괄 기획을 맡은 시온미디어는 광주의 민주정신을 빛과 불로 재해석, 매달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민주 인권 정신을 담은 콘텐츠 제작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Flower from Heaven'